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1교시)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절대적 최적화는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이고, 상대적 최적화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구하는 것이다. 출근을 하는 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길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지만 대신 좁다. 고속도로는 넓기 때문에 차가 1대가 가든 4대가 가든 언제나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1대가 가면 1분이 걸리고, 2대가 가면 2분이 걸리고, 3대가 가면 3분이 걸리고,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수식을 써서 푼다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솟값이 나오는데, 그때 x=5가 된다. 즉 5명은 위로, 5명은 아래로 가야 한다. 그러면 위로 가는 사람은 고속도로이므로 10분씩 걸리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5명이므로 5분씩 걸린다.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5명하고,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을 합치면 총 75분, 한 사람당 7.5분이 걸린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이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인데,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 가면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 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6분이 걸리지만,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로 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5:5로 질서 있게 나누어 가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사람이 옮겨 가면 지름길에는 총 7대가 되어 7분이 걸리지만 고속도로로 갈 때보다 3분이 이익이므로 두 번째 사람도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까지 모두 지름길을 택해, 10명이 모두 10분씩 총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 일천구백삼십사 년의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다. 그것은 P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잡힐 것도 없었고 어디서 벌이를 한 적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P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운다면 근로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질는지도 모른다. P가 소부르주아지* 축에 끼이는 인텔리가 아니요, 노동자였더라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다.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다. 그렇지만 죽기보다도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방시켜 주지 아니한다. 그의 아들 창선이를 올려 보낸다고 어제 편지가 왔고 오늘은 내일 아침에 경성역에 당도한다는 전보까지 왔다. 올라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안 OO인쇄소의 문선 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일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 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 달라고 졸라 대었다.

A라는 그 문선 과장은 요리조리 칭탈*을 하던 끝에 - 그는 P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천거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

"보통학교나 마쳤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키잖구?"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 되고 또 보내 봤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 본 나머지 그게 못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린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

"애처로운 거야 아비 된 내가 더하지요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P는 당부와 치하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짐을 벗어 놓은 것같이 몸이 가뜬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OO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내키지 않는 발길을 돌이켜 나오는 P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

* 소부르주아지: 부르주아(유산자)처럼 자산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프롤레타리아(무산자)도 아닌 중간 계층. 소상공인이나 소농인 및 지식인 등이 여기에 속함.
* 칭탈: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댐.

(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시어야 한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어떻게 갑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아버지는 아들

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순수 이룩허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 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 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둑에 선 느티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헌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으며 나라가 어딨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룬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헌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라) **면장**: 어쨌든 칠산리 골짜기의 그 무덤을 옮기셔야 합니다.

장남: 몇십 년째 있던 무덤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죠?

면장: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허리를 잘라 내고 골짜기를 메꿔야 길이 나는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남: 그런 곳에 갑자기 자동차 길을 내다니요?

면장: 칠산리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 시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란 군수님이 자동차 길을 내 주기로 한 겁니다. 버스도 다니고 화물차도 다니면 사람들 형편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장남: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면장: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길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군청에서는 면장인 나더러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는데 연고자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구……. 그래서 생각 끝에 면사무소 문 앞에다 분묘 이장 공고를 써 붙였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이 되니깐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장남: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젭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긴다는 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짓겠어요.

면장: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글쎄요……. 다 모여서 의논해 봐야만 결정짓겠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치 그 결정에 따라 무덤을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입니까?

장남: 물론이죠, 면장님.

면장: 이젠 면사무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칠산리 어머니의 무덤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죠! [중략]

면장: 당신들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굶어 죽은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겠지요.

장남: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들의 심정을요.

면장: 어쨌든 그 어머니가 묻힌 무덤은 옮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촉한다.) 어서들 결정하세요! [중략]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겁니다.

장녀: (더욱 강경한 어조) 그렇게 할테면 하라죠!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차녀: (회의적인 태도로 고개를 흔든다.)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닐 옮겨 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삼남: 칠산리는 지긋지긋해. 그곳은 우릴 반겨 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두 나쁜 건 아니라구. 오히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장녀: (꾸짖는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냐!

삼남: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라구 생각하지 마.

장녀: (분개해서 삼남의 뺨을 친다.) 누구야? 또 누구지? 우리들 중에서 칠산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정말 그냥 안 둘 테야!

삼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낀다.)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건 무섭다니깐…….

장남: (삼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린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구. (자식들에게) 다들 마음을 진정하구 생각해 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칠산리와 똑같구, 우리가 겪은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구…….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듯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야. (흐느끼는 삼녀를 데리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며) 우리는 칠산리로 가겠어. 어머니를 모셔 갈 사람들은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구.

면장: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고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답니다.

(마) 관료제 조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대규모 위계 조직이다.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업무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

세분화된 업무를 분업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조직 내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소수 상급자가 다수 하급자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규칙과 절차에 의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과업을 수행하는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바) 직업윤리는 직업 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과 규범을 뜻한다. 특수 직업윤리는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하는 행동 규범이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등의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가 가진 특권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부정부패는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여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공동체주의가 그 사회만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관습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까지 수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즉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아)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릴 해?"

시뻘건 얼굴을 홱 돌리며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 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댁의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여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 볼 것도 없이 강 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꿰어 차고서. 얼갈이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닦달에 그냥 해 본 소리겠지요."

"그냥?"

"밭에다 그 지경을 해 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슈."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강 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차례 오금을 박는다.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 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팔육인가 팔팔인가 땜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수? 팔팔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줍디

까? 그 전에 제 가격 받고…….”

“시끄러!”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의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 보낸 걸 몰라!”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 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 신간: 몸통.

(자) 피파 집행 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 개최국 결정 시기를 앞당기자 한국은 이에 맹렬히 반대하며 협상 시기를 지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유치 홍보 기간의 종반에 한국은 기존의 단독 개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일 공동 개최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동 개최가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외교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고,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피파 규정을 들어 공동 개최를 반대했다. 한일 간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아시아 축구 연맹(AFC) 측에서 ‘한일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유럽 축구 연맹(UEFA) 회장이 이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구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일 공동 개최’는 유럽 세력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면장’의 행동을 제시문 (마)를 토대로 서술하고, ‘면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갖춰야 할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와 제시문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를 서술하고,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출전 및 출제의도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정하웅,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이상형 외, 『국어』, 지학사, 2018, 160-164쪽.
- 제시문 (나):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이성영 외, 『국어』, 천재교육, 2017, 398-402쪽.
- 제시문 (다): 이태준, 「돌다리」, 민현식 외, 『국어』, 좋은책 신사고, 2017, 108-117쪽.
- 제시문 (라): 이강백, 「칠산리」, 이성영 외, 『국어』, 천재교육, 2017, 66-81쪽.
- 제시문 (마): 「관료제의 특징」,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8. 74쪽.
  「관료제의 조직과 탈관료제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7, 74쪽.
- 제시문 (바): 「직업윤리와 청렴」,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7, .86쪽.
  「직업윤리와 청렴」,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2017. 84-87쪽.
- 제시문 (사): 「다양한 정의관으로 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7, 173쪽.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 2017, 178-179쪽.
- 제시문 (아): 양귀자, 「마지막 땅」, 박영민 외, 『국어』, 비상, 2018, 270-283쪽.
- 제시문 (자): 김기홍,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 정민 외, 『국어』, 해냄에듀, 2018, 354-357쪽.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8)에 실린 정하웅이 쓴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은 고속도로와 지름길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를 고려하는 수학적 계산으로 절대적 최적화를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대적 최적화의 원리로 전체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지름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지름길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교통 체증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7)에 실린 채만식의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의 주인공 P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상경 소식과 현재 궁핍한 현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인텔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감 속에 아들을 인쇄소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다. P는 어린 아들을 인쇄소로 보낸 결정 후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으나, 어린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 신사고, 2017)에 실린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에서 주인공의 아들인 창섭이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땅을 팔 것을 제안하지만 창섭 아버지는 땅을 가족의 삶과 천지만물의 근원이라는 신념으로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짐을 예감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7)에 실린 이강백의 「칠산리」라는 희곡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은 군청에서 자동차 길을 내려고 면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어머니 무덤을 옮기도록 요청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장남을 비롯한 자식들은 어머니와 칠산리에 대한 애정으로 이장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적 압박감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장남은 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족들은 칠산리에 있는 지금의 무덤이 아니라 어머니가 모신 곳을 고향으로 여기면 된다는 장남의 결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사회 조직의 의미와 유형」의 일부와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사회 집단과 사회조직」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이 단원들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 집단 혹은 조직들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에서 관료제의 특성인 업무의 전문화와 분업화, 서열화된 위계, 규칙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금성, 2017) 교과서에 실린 「직업윤리와 청렴」의 일부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직업윤리와 청렴」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이 단원들의 목표는 다양한 직업들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에서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2017)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정의관으로 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의 일부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비상, 2017) 교과서에 실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이 단원들의 목표는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의 사익보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이 함께 추구될 수 있도록 조화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비상, 2020)에 실린 양귀자의 소설 「마지막 땅」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가치관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해당 인물들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9)에 실린 김기홍의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2002년 개최된 피파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 개최토록 결정하게 된 협상 과정의 소개를 통해 협상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상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제시문이 의사소통에 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와 내려진 의사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특정한 사회 조직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의 행동을 설명하는 입체적 분석력과 2)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나 태도를 현대 사회에 적용해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유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조직이 가지는 특징을 적용하여, 면장에게서 나타나는 공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직업 윤리의 논지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 사회에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문학 텍스트 속에 묘사된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특정한 주제에 맞는 근거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과 2)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상태도와 전략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각 제시문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이 초래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의 사람들은 타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대적 최적화 원리에 따라 지름길을 결정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여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 (나)의 P는 갑작스러운 아들 양육 통보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아들을 인쇄소로 보내는 결정 후 양육 부담의 완화로 안도하지만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인생에 대한 허탈감을 동시에 느낀다. (다)의 아버지는 땅과 고향을 가족과 삶의 터전이라는 신념으로 땅을 팔지 않기로 한다. 그 결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차이를 확인하고, 부자간 심리적 결별을 예감하면서 공허감, 안타까움을 느낀다. (라)에서 장남은 군청의 요구로 촉발된 가족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 가족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어머니가 계신 곳을 고향으로 여겨 이장을 결정한 장남의 제안을 수용한다. 결론적으로 상대적 최적화, 회한, 신념, 가족 갈등의 해결을 이유로 내린 의사결정은 교통 체증, 허탈감, 공허감, 장남의 인식 변화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66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면장'의 행동을 제시문 (마)를 토대로 서술하고, '면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갖춰야 할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서 관료제 조직의 특징인 분업화, 서열화된 위계, 규칙과 절차가 면장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동차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업무 중, 면장은 군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분업화에 해당한다. 면장이 군청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르고,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에서 서열화 된 위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이장 공지를 하고,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묘지의 강제 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업무 처리과정에서 면장이 자신의 판단과 재량보다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장은 공직자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함,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면장은 이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성찰함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68자)

[문제 3]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와 제시문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를 서술하고,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다)의 창섭 아버지는 땅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조상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며, 이해타산에 의해 처분할 수 없는 천지만물의 근거로 생각한다. 반면, (아)의 강 노인은 땅을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땅을 팔아버렸던 허망한 경험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데 위안을 느낀다.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아)의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418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의사결정으로 초래된 '결과'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이유**: 타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상대적 최적화 원리(4점)
결과: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여 교통 체증의 심화(4점)

(나) **이유**: 갑작스러운 아동의 양육 통보,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4점)
결과: 양육부담을 완화한 안도감,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인생에 대한 허탈감(4점)

(다) **이유**: 땅과 고향을 가족과 삶의 터전이라는 신념(4점)
결과: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차이를 확인하고, 부자간 심리적 결별을 예감하면서 공허감, 안타까움(4점)

(라) **이유**: 군청의 이장 요구로 촉발된 가족 갈등의 해소를 위함(4점)
결과: 가족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어머니가 계신 곳을 고향으로 여기는 인식 변화로 장남의 결정을 수용(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의사결정으로 초래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각 제시문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이 초래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 결론: 결론적으로 상대적 최적화, 회한, 신념, 가족 갈등의 해결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교통체증, 허탈감, 공허감, 인식 변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이유와 결과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관료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시문 (라)에 나타난 면장의 행동을 관료제 특징에 맞게 올바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15점): 3~15점 부여

①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관료제 조직의 특징은 분업화 된 업무, 위계의 서열화, 규칙과 절차에 의한 업무 수행이다.

② 제시문 (라) 속에서 나타나는 면장이 보여주는 관료주의적 행동은 군청의 지시를 받아 임무 수행, 일의 경과에 대해 상급자에 보고, 이장 공고 및 강제 이장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 제시문 (마)의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언급하면 3~5점 부여
- 제시문 (라)와 관료주의적인 행위를 언급하면, 3~5점 부여
- 제시문 (마)의 관료제 특징과 (라)에 드러난 면장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의 관점을 근거로 면장에게 나타난 관료제 특징을 정확히 부여했을 경우, 10~15점 부여

2) (라)의 면장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통합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5점): 5~25점

① 제시문 (바)에 나타난 직업윤리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투철한 사명감 등이 있다.

② 제시문 (사)의 논지는 개인과 공동체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바라보고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함이다.

- 제시문 (바)의 직업윤리와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정확하게 제시했을 경우: 6~10점 부여
- 제시문 (사)의 개인선과 공동선과 조화를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6~10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제시문 (라)의 면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점을 서술했을 경우: 20~25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의 면장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평가(15점): 3~15점	제시문 (마)의 관점을 서술한 경우	3~5점
		제시문 (라)와 면장의 관료주의적 행동 특성을 서술한 경우	3~5점
		(마)의 관점을 근거로 (라)의 면장의 관료주의적 행동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	10~15점
	② (바)와 (사)를 근거로 면장이 직무 수행에 갖춰야 할 자세를 평가(25점): 5~25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7~10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4~20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라)의 면장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했을 경우	20~25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와 제시문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가 땅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한 경우(5점)

> **[예시]**
> (다)의 창섭 아버지는 땅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로 이해타산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천지만물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제시문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한 경우(5점)

> **[예시]**
> (아)의 강 노인은 땅을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땅을 팔아버렸던 허망한 경험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데 위안을 느낀다.

2) 제시문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명확히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모두 언급한 경우(10점)

②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만을 언급한 경우(5점)

③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만을 언급한 경우(5점)

> **[예시]**
>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아)의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다)의 창섭 아버지와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10점)	(다)의 창섭 아버지가 땅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설명	2-5점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설명	2-5점
	②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명확히 서술하였는지를 평가(10점)	(자)를 활용해 (아)의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중 하나만을 설명	3-5점
		(자)를 활용해 (아)의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	8-10점